< 제 61회 변리사시험 3교시 지구과학 총평 >

윌비스 지구과학 전임 박 준 희 강사

이번 지구과학 출제 난이도는「중상」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60회, 2023년)과 제작년(59회, 2022년) 출제 수준에 비추어 판단건대, 난이도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 지문에서 엿보였습니다. 다만, 역대급으로 고난도로 출제되었던 49회 시험문제에 비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출 문제 수준을 기준으로, 만점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8개 정도 답을 맞추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판단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역별로 보자면, 지질학(고체 지구과학) 파트가 총 여섯 문제로 유난히 많이 출제되었는데, 그 중 세 문제는 보웬의 반응계열 및 화성암표에서 집중 출제되었으며(High-End 지구과학 3장), 지질시대 표준화석과 우리나라 지질에 관련된 문제(High-End 지구과학 4장)도 각각 출제 되었습니다. 반면, 대기과학은 대기 층상구조에 관한 문제(High-End 지구과학 1장) 하나만 출제되었고, 해양학도 해류에 대한 문제 하나(High-End 지구과학 2장)만 물었을 뿐입니다. 천문학은 목성형행성의 특징과 태양의 특징에 대한 문제(High-End 지구과학 5장)만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반복적으로 출제된 부분이나 기존 기출 문제 수준 정도로만 가볍게 공부하신 분들은 생소한 문제 유형이나 단어에 꽤 당황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지구과학은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일부 생소한 문제에서의 당황함은 나머지 문제를 푸는 데도 조급함과 실수를 낳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시험을 마친 후 실수로 판단되는 선택도 보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과학 네 과목 중 가장 확실한 점수를 얻어야만 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인 만큼, 100중 70~80의 눈높이로 공부하여 요행을 바라기보다 130~150 수준의 면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가장 수고한 본인에게 피로한 마음과 몸을 기특히 여기며, 칭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합격을 위한 의지를 다시며 새 계획을 진행하시는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시기를 조언드리며, 제 61회 지구과학 기출 총평을 마칩니다.